

굿모닝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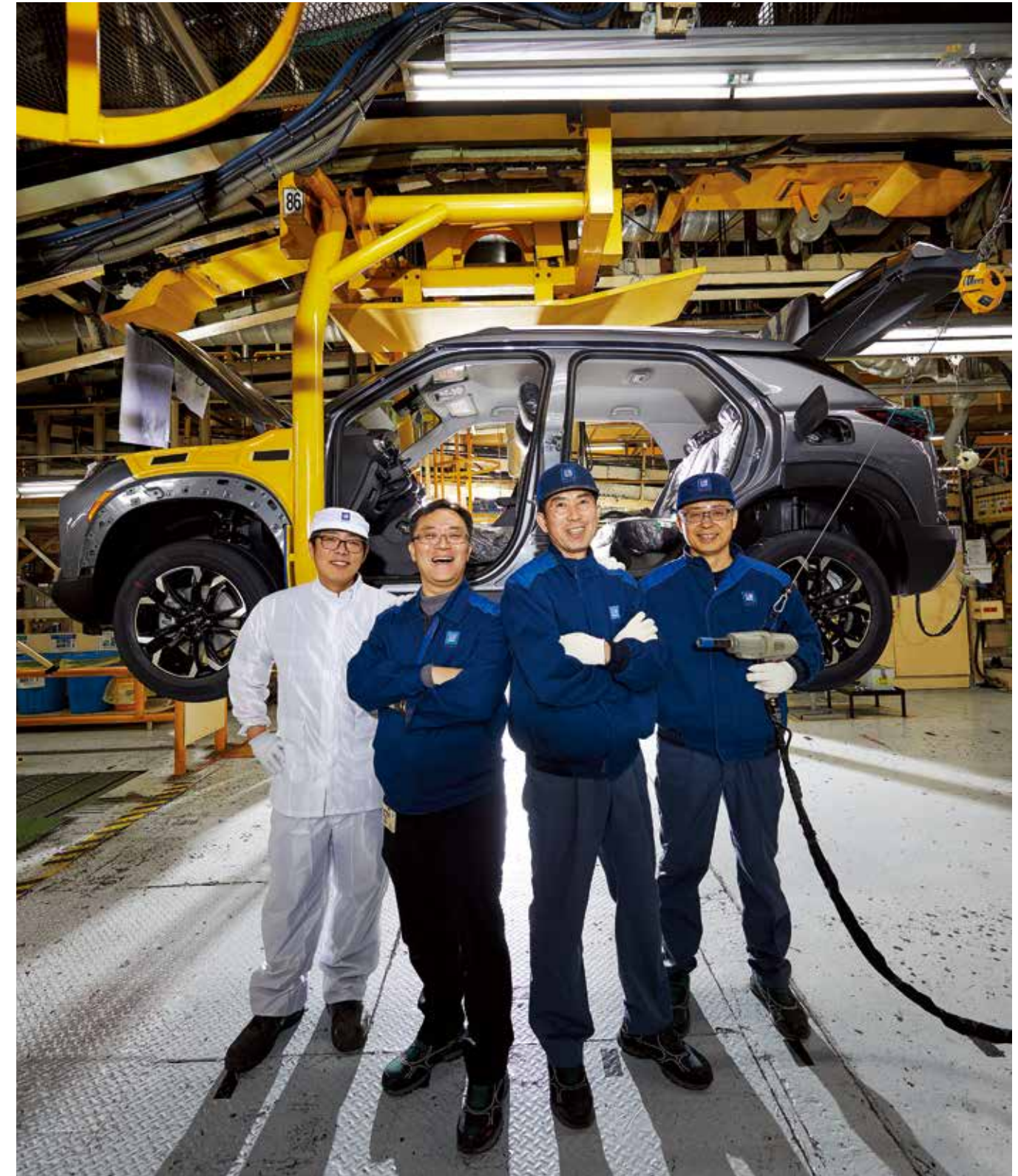
MARCH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5

03

COVER STORY 메이커스,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트레일블레이저' 제작 현장에서
직원 한재홍, 김진홍, 정진근, 권오관(왼쪽부터)

표지 사진 류창현



굿모닝

2020.03 | MARCH

코로나19 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시민 행동 수칙

코로나19에 대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예방·대비를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일반 행동 수칙

YES!

손은 한 번에 30초 이상, 자주, 비누로!
기침·재채기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NO!

병원 방문안과 다중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발열·기침·목 아픔·호흡 곤란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2 유증상자 행동 수칙

NO!

등교·출근·일반 병원 방문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YES!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
(발열, 호흡기 증상)를 관찰해 주세요.

증상이 심해지면 1339, 119, 032-120,
지역 보건소 등으로 즉시 전화 상담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여행·방문·접촉력 등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3 고위험군 행동 수칙

YES!

노약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수시로 발열·기침·호흡 곤란 등 체크!

의심 증세 있을 시 주변에 즉시 도움 요청하기!

NO!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고 다중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4 이동·방문 행동 수칙

NO!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과
타지역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행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YES!

휴교·휴관·취소 등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이동·방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될 때 | 질병관리본부 1339 | 미추홀센터 120 | 119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성목재 근처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1990년).

이
설
야

아플수록 빛나는
시인의 보석 상자

가난은 시인의 꿈을 가로막았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상업계 고등학교 원서를 내밀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던 여고생 시절, 시인의 주위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마작을 하는 주인집 할머니네 담장 옆 쓰레기통에 죽어 있던 길고양이의 눈빛이 그랬고, 신흥동 여인숙에서 까맣게 탄 장판에 누워 한숨 쉬던 다섯 살 소녀의 눈빛이 그랬다.

하지만 스스로 결핍을 지우고 꿈을 가로막던 장벽을 걷어내며, 시인은 기어이 꿈을 이뤄냈다. 벗어나고만 싶던 궁핍한 생활과 불길하기만 했던 눈빛들이 그대로 시가 되었다. 시인의 마음속에 인천은 시적 영감으로 가득한, 빛나는 보석 상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자세한 이야기는 이설야 인터뷰 2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MARCH 2020
Vol. 315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신봉훈(소통협력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04	인천 미소 눈으로 보는 계절의 맛 外
06	인천의 맛 ⑦ 장봉도 지주식 김
12	메이커스, 인천 ③ 한국지엠
16	코로나19 대응 현장 인천의료원
20	인천, 사람 ③ 이설야 시인
24	인천 VS 세계 도시 ② 인천소래습지생태공원 VS 홍콩습지공원
28	‘인천시 홍보대사’ 가이드 인천대공원 라이딩
32	청년 정책 맞춤형 청년 공간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지휘자 김종석
40	시민 시장 부평 스토리텔러 박명식
42	문화 포커스 보조끼 데조 1908 : 헝가리 의사가 본 제물포
44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극복하기
46	시정 뉴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총력 대응 外
50	의회 뉴스 중국 우호 도시에 위로와 응원 메시지 전달 外
52	드로잉 인천 개항장
54	인포 박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外
58	인천의 아침 백범白凡이 사랑한 인천
59	인천사진관 김환주 독자님 가족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채널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눈으로 보는 계절의 맛

‘인천의 맛’ 기사를 읽는 내내 꼬르륵거리는 배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글 덕분에 벌버리묵과 박대구이 한 상을 배부르게 차려 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무의도 한번 들를 참입니다. 막바지 계절의 향취를 만끽하며 진짜 인천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강호우 남동구 남동대로

배움으로 풍요로운 도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평생 교육을 주체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나 무료 교육 등 시민들이 배움을 통해 삶을 살찌울 수 있도록 <굿모닝인천>이 다리를 놓아주세요.

이은미 계양구 주부토로

있는 그대로의 인천을 보는 창

30대 후반, 새로운 각오로 직장을 인천으로 옮긴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낯설던 인천이 이제는 고향처럼 정겹습니다. 출퇴근길 전철 안에서 만나는 <굿모닝인천>은 다정한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인천을 비추는 <굿모닝인천>이야말로 인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매개체가 아닐까 합니다.

조한석 의정부시 오목로

인천 구석구석 보물 같은 이야기

인천에서 35년을 살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볼 때마다 아직도 알지 못한 공간이 이토록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랍니다. 지금처럼 구석구석 자리하는 인천의 보물들을 잘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늘 함께 하고 있지만 늘 새로운 인천의 모습, 사랑하는 내 고향 인천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최정규 부평구 갈월서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인싸’이드
송도

글 박영희(연수구 송도동)

상전벽해桑田碧海. 송도국제도시가 딱 그렇다. 1990년대에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너른 갯벌을 매립한 간척지 위에 하나둘 건물이 세워졌다. 그렇게 송도는 새 희망을 품은 미래 도시의 탄생을 알렸고, 지금은 모두가 사랑하는 ‘인싸’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조성된 송도 센트럴파크는 공원 내에 1급수 바닷물을 들여놓은 대한민국 최초 해수 공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지상 68층 포스코타워송도와 독특한 외관의 고층 아파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옥마을, 세련된 건축미를 뽐내는 문화 공간 트라이볼, 태백산맥을 본떠 만든 송도컨벤시아, 명품 문화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 글로벌 도시의 심장 G-타워, 인천 역사를 품은 인천도시역사관 등은 송도를 빛나게 하는 주인공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15개의 국제기구가 상주하고 있는 G-타워는 건물 자체가 문화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는 IFEZ 홍보관에서는 통유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뿐 아니라 시원하게 펼쳐진 인천대교, 탁 트인 서해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다. 트라이볼 바로 옆에 위치한 인천도시역사관은 인천의 변화무쌍함을 다양한 실물 자료와 모형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 문화 공간이다. 인천의 도시 계획과 역사, 발전 과정을 세밀하게 담고 있다. 인천과 관련된 인문학 강연과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문화 통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블링블링. 밤마저 로맨틱한 송도의 매력을 하나 더 꼽자면, 바로 해무다. 고층 빌딩을 휘감으며 건물 사이를 타고 흐르는 해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동북아 허브 도시, 친환경 도시, 스마트 시티, 교육 도시, 미래 도시…. 지금 이 순간도 송도는 대한민국 인천을 넘어 세계 속 인천으로 비상하고 있다. all_ways_INCHEON, all_ways_SONGDO!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일곱 번째는 모진 바람과 시린 물살을 견뎌내며 깊어지는 맛, 장봉도 ‘지주식 김’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햇살, 바람, 바다
그리고 귀한 땀의 결실



바닷바람이 매서운 겨울의 끄트머리,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섬 남쪽 해변에서 농기계를 개조한 트랙터를 타고 멀지 않은 바다에 이르니, 김밭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진다. 축구 경기장 100개 크기에 이르는 80ha의 광활한 지주식지주식 김 양식장이다. “와, 멋지네요.” 감탄을 내뱉는 순간, 정연희(60) 어촌계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그런 소리 입에도 담지 마요. 어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인데.” 봄빛 일렁이는 저 바다는, 섬사람들에게는 눈물겨운 생존의 장이다. 평생 차디찬 바람 맞고 갯벌에 뒤엎겨 지주를 세우고 밭을 던지고 김을 매왔다.

지주식은 갯벌에 버팀목을 박고 그 위에 밭을 매달아 김을 기르는 재래식 양식법이다. 김 한 장을 만들기 까지 아흔아홉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주식으로 김을 기르는 건, 고되고 힘든 일이다. 찬 바람이 부는 9월 말이면 어민들은 포자가 붙은 김밭을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 이후 보름이 지나 김 이파리가 돋으면 겹쳐진 김밭을 하나씩 떼어내 기둥에 고정한다. 그리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고여덟 번에 걸쳐 물김을 거둬들인다. 김은 물에 잠기면 바닷속 영양분을 흠뻑 빨아들이고, 물이 나가면 햇살과 바람을 한껏 들이마신다. 자연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루 두 번, 양식장으로 달려가 바닷물에 잠긴 김밭을 끌어올려야 한다. “김도 빨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들었다 낚다 해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그렇게 20여 일 꼬박 해와 달의 기운을 받고 정성을 들인 끝에야, 지주식 김이 세상의 빛을 본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땀 흘린들,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2년 전, 한파로 한강에서 유빙氷이 떠 내려왔을 땐 하릴없이 먼바다를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해 고작 두어 번 김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오늘, 따스하게 섬을 비추는 햇살은 그저 평화롭기만하다.



하늘길 대신 바다를 내어주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 앞바다 섬 주민들은 김을 양식해 왔다. 장봉도 갯벌에만도 2만~3만 책의 김 양식장이 있었다. 책이란 20~40m 넓이의 김을 양식하기 위해 드리운 그물을 말한다. 한 책당 보통 1백 속의 김을 수확할 수 있으니 1속(100장 묶음) 당 5천 원에 내다 판다 해도 불과 몇 십 m 땅에서 한겨울에 수십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 모두 영종도 신공항 건설 이후 폐쇄됐다.

-한겨레 | 1996년 3월 1일자

• 1980~1990년대 초반 해도 장봉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산지였다. 당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장봉 김을 전국 최고로 쳐줬다. “당시 한 속당 김의 가격은 상급이 7,000원, 중급이 6,000원, 하급이 5,000원이었는데, 장봉 김은 대부분 상급으로 한 속이면 일꾼의 하루 샅이 충당됐어요. 지금은 20속은 팔아야 일당이 나올까 말까 해요.” 호시절을 떠올리는 이봉구(54) 장봉영어조합장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한다. 바다는 주인이 따로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갯벌이 메워지고 섬에 거대한 활주로가 나면서 양식장이 막혀버렸다. 하나둘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났지만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다 2000년부터 한시적으로나마 김 양식의 길이 열렸다. “잘 참아냈지요. 먹고살 길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성균(64) 씨는 1980년대부터 김 농사를 지어왔다. 애타는 심정으로 빈 바다를 지켜보았을지언정, 마음은 바다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우우웅’, 이 순간에도 비행기가 끊임없이 섬의 하늘을 훑고 지나갔다.

어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김 양식장.
봄빛 일렁이는 저 바다는,
섬사람들에게는 눈물겨운 생존의 장이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삶이 담긴 맛

• 김을 기르는 어민들은 자연의 흐름에 모든 감각을 집중한다. 바람 부는 방향과 햇살, 물살에 따라 김의 맛과 향, 빛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을 맞고 자란 김은 검은빛을 띠고 맛도 좋다. 또 햇살이 스밀수록 더 짙어지고 감칠맛이 돈다. 그래서 어민들은 햇별이 따사로운 날이면 거르지 않고 바다로 향한다.

“장봉도 김 양식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어요. 조수 간만의 차도 커 햇빛에 드러나는 시간도 많고요. 낮은 수온과 찬바람, 햇별이 김의 맛과 향을 한껏 끌어올리지요.” 장봉 김이 남해에서 나는 김과 다른 맛을 내는 까닭이다.

공항이 들어서면서 갯벌이 사라지고 바다가 척박해졌다. 하지만 그 또한 자연의 순리라며, 섬사람들은 묵묵히 물길을 찾고 부지런히 김발을 매만진다. “수확량이 줄고 옛날 김 맛도 안 나요. 그래도 포자를 부착하는 것부터 양식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전성기 때를 많이 따라갔어요. 허허.” 장봉 바다에 평생 김발을 던져온 윤 씨의 얼굴에 열은 미소가 흐른다.

겨울의 끝자락, 그리고 봄의 시작점. 장봉도 선착장엔 물기 어린 김을 가득 실은 배가 드나들고 향긋한 바다 냄새가 진동한다. 이제 4월이면 검붉었던 바다는 점차 제 색을 찾아갈 테지만, 머지않아 아버지는 다시 바다로 나가 지주를 세우고 김발을 내릴 것이다. 모진 바람과 시린 물살을 견딜수록 더 깊어지는 맛. 거친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삶의 희망을 낚아 올리는 섬사람들을 그대로 닮았다.





자연이 내려주고,
사람이 완성하는 맛

지주식 김은 바닷물에 잠겨 키우는 부유식浮遊式에 비해 자라는 속도는 더디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다. 물이 날 때 햇빛을 받고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는 고된 성장 과정을 거치며, 바다의 풍미를 짙게 채운다. 장봉도에는 총면적 189ha에 이르는 9개 지주식 김 양식장이 있다. 북쪽에서 부는 찬 바람과 낮은 수온, 조수 간만의 차가 김의 맛을 무르익게 한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이느냐에 따라 더 오묘하고 섬세한 맛을 낸다. 햇살, 바람 그리고 사람의 정성을 더해 만드는 귀한 결실. 이 봄, 자연이 내려주고 사람의 손길 따라 깊어지는 섬의 맛을 한상 차렸다.

식객 식당
웅진군 북도면 장봉로537번길 10
☎ 032-751-7027



취재 영상 보기

‘청정웅진 7미’
할머니 손맛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나이 든 어머니는 아침부터 갯일에 나섰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양재옥(65) 어르신은 30여 년 전 섬 토박이 남편을 따라 장봉도로 왔다. 육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섬에선 흔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김치만 곁들여 밥상에 올려도 모두 맛있다고 했다. 너도나도 요리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7년 전엔 아예 식당을 차렸다. 주인장의 야무진 손맛에 반해 웅진군이 ‘청정웅진 7미’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저 손 가는 대로 만드는데도, 군수님도 동네 사람들도 다들 맛있다고 해. 단, 재료는 좋은 것만 쓰지. 절대 아무거나 안 써.”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숨씨다. 여기에 굴, 김, 백합, 소라... 섬에서 나는 싱싱한 재료를 듬뿍 넣어 정성으로 버무리니, 그 맛이 깊고 풍부할 수밖에.

01 김무침

“여기 김은 약 처리를 안 해 부드럽고 맛있어. 물김을 무치고, 국으로 끓이고, 전으로 부쳐 먹어도 별미지.”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김을 물김이라고 한다. 물김은 바다의 풍미를 고스란히 간직할 뿐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도 풍부하다. 물김을 채취해 바로 무쳐 먹으면 그 풍미가 깊다. “비법이랄 게 있나.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파래는 푸석푸석한데 김은 식감이 더 부드럽다. 여기에 마늘, 식초로 맛을 내고 배, 무, 당근을 버무리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상큼하다.

을왕리부터 소문났던
어머니 손맛



02 김국과 김전

“보통 생김을 먹으면 혀에 싸한 맛이 감도는데, 여기 김은 달아.” 김 수확철인 10월에서 4월 장봉도에 가면, 생김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김국은 제철 굴을 넣거나 달걀을 풀어 넣어도 맛있다. 생김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쓰거나, 마른 김을 물에 풀어 끓여도 괜찮다. 또 생김에 굴, 야채를 넣고 노릇노릇 전으로 부쳐 먹으면 바다 향에 고소함까지 입안이 풍성해진다.

박재순(54) 씨는 장봉도 웅암해수욕장 앞에서 7년째 식당을 꾸리고 있다. 전에는 을왕리에서 조개구이집을 했다. “갯일을 좋아해서, 장봉도에 자주 놀러 왔어요. 언젠가 물때에 맞춰 섬에 왔다가 문득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눌러앉게 됐지요.” 산에서 나물 캐고 바닷가에선 소라 줍고 조개를 캐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잡는다. “지폐를 줍는 거지, 뭐.” 육지와 바다로 가로막힌 섬에서의 삶. 주말에 밀물처럼 밀려들던 사람이 평일에 썰물처럼 빠질 때면 외로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바다를 떠올리는 그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핀다. “손님이 많아서 바다에 못 나가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요. ‘소라고 백합이고 지천일 텐데’ 하는 생각예요.” 검게 그을린 섬 아낙의 얼굴에 말간 미소가 번진다.

비치 식당
웅진군 북도면 장봉로 198
☎ 032-752-4542



03 백합칼국수

장봉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다. 강과 바다가 만나 굽이치니 사시사철 바다의 산물이 모여든다. 그중 대표적인 먹거리가 백합이다. 섬사람들은 상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급 식재료인데 여기는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냄비에 삶아 톳통하게 오른 백합을 잔뜩 넣고 우르르 끓여 먹는 맛이란. 여기에 섬에서 나는 김을 곁들이니 바다의 풍미가 가득하다.



04 소라비빔밥

“쫄깃한 식감과 신선한 맛에 모두 반한답니다.” 소라비빔밥은 우리 시가 개발한 섬 대표 음식 중 하나다. 대한민국 대표 음식 비빔밥에 장봉도의 대표 특산물 ‘소라’를 맛깔스럽게 버무렸다. 갯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싱싱한 소라와 나물, 고추장을 넣고 속속 비벼 한입 가득, 쫄깃한 소라가 입맛을 돋운다. 섬 앞바다에서 그날 잡은 소라와 색색의 어린 채소는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럽다.

TRAIL BLAZER

: 개척자, 선구자



한국 자동차의 개척지에서 새 길을 열다

오늘도 당연하게 쓰이는, 무심코 손에 닿는 물건들. 그 누군가가 일터에 틀어 박혀 인생을 내어주고 만들어낸 것들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메이커스’를 만난다. 그 세 번째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첫 시동을 건 부평에서, 오늘 네 바퀴로 새로운 길을 달리는 ‘한국지엠’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고객 양도를 앞둔 트레일블레이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야적장에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건 우리’라고 자부한다.



1986년, 아버지의 봄

‘5년만 버티다, 내 가게를 내자.’ 길거리에서 쌀장사를 하고 연탄을 팔다 막다른 골목에 섰다. 돈이 필요했던 아버지에게 몸을 쓰는 것 말고 선택의 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한국지엠 신차 팀의 정진근(59) 직장은 1986년 봄, ‘대우자동차’에 들어갔다. 기름때를 묻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운이 좋았다. 부평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고 하면 어디서든 어깨를 으쓱할 수 있었다. 그가 입사하고 두 달 후 그 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르망’이 탄생했다.

9만7,000원. 1986년 4월, 그가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첫 땀의 대가였다. 그 후로 그는 주말에도 일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를 빼곤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1980년대는 2교대 근무로 근로자들이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 반에 퇴근했다. 종일 일하고도 야간 조를 대신해 밤을 새우곤 했다. 내 몸 부리는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목표했던 5년이 지났다. 생각보다 손에 주어진 게 많지 않았다. 그 사이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다독이는 사이 35년이 흘렀다. 내달이면 정년퇴직을 한다.

“강산이 세 번 반이나 변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집도 두 채나 샀다. 지금 군에 있는 아들은 대학에서 자동차학과를 나와 그의 뒤를 잇겠다고 스스로 나섰다. 숙명처럼 짊어진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굳이 따르겠다는 아들을 처음엔 말렸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아들의 말에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평생 자동차 만들면서 누나들과 나, 자식 넷을 훌륭히 키우셨잖아요. 저도 잘해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힘으로, 네 바퀴를 움직이다

인천은 한국 노동자의 힘으로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낸 역사적인 도시다. 1930년대 초반, 우리나라 자동차 대부분이 미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는 일제의 자동차 부품 공장 ‘조선국산자동차’가 부평에 세워졌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린 건, ‘자동차 공업 육성’ 정책을 편 1960년대에 이르러서다. ‘한국지엠’의 전신인 ‘신진자동차공업’이 1965년 부평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첫 시동을 걸었다. 신진자동차공업은 부평에 165만2,893㎡(50만 평)의 땅을 사들여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세우고, ‘코로나’ ‘크라운’ ‘퍼블리카’ 등의 승용차를 생산했다. 지금의 한국지엠 부평공장이다.

한국지엠의 신차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매니저 김진홍(50) 부장은 2대째 부평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뿌듯하겠다”라고 말하니, “힘들어서 그런 마음 들 새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신진자동차공업’



1 “선배님들이 하던 걸 제가 물려받아 이만큼 왔잖아요. 후배들도 트레일블레이저 후속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우리 일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 신차 팀 정진근 직장

2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우리 차를 봤어요. 차가 아주 좋다고 말해서 기뻐합니다. 고객들이 우리가 만든 차에 만족할 때가 가장 보람돼요.”

- 도장 1부 한재홍 차장

3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려면 각각의 역할이 정확히 맞물려야 하지요. 모두의 힘으로 이뤄진 결과예요.”

- 조립 1부 권오관 부장

4 “세계 시장에선 같은 브랜드라도 한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선호해요. 고장이 적고 품질이 좋기 때문이지요. 이는 한국인의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에서 기인합니다.”

- 신차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매니저 김진홍 부장



TRAILBLAZER

한국지엠 부평공장, 안운권 부평공장, 안운권 부평공장

신차가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개발에서 제조까지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만 1만여 명.
그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2만여 개의 부품을 맞추고 나서야 비로소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다.

시절부터 33년간 한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조 공장의 규모에 비해 연구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도면과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자동차를 개발하고 부품을 만들면서 점차 시장은 커져갔다. 그리고 오늘,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장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건 우리’라고 자부한다.

“현재 세계 시장에선 같은 브랜드라도 한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선호해요. 고장이 적고 품질이 좋거든요. 이는 한국인의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에서 기인합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정 직장이 상처투성이 손을 보여준다. 작업용 장갑이 있지만 손이 무뎌진다면, 생살을 찢기면서도 기어이 맨손으로 차가운 쇳덩이를 만져온 그다.

인천,
부평이 만드는
세계적인 SUV

“정말 자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국에서 리드한 세계적인 SUV이다.” 지난 1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린 트레일블레이저 양산 기념



한국지엠의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 판매 물량까지
부평공장이 책임진다.

식에서 카허 카젠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의 목소리는 힘 있고 당당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SUV 신차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름에 담긴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처럼 한국지엠의 브랜드 ‘쉐보레’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디자인 단계부터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도맡아 그 의미가 크다.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 판매 물량까지 부평공장이 온전히 책임진다.

정 직장은 트레일블레이저의 실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다. 동료들과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몇 날 며칠을 꼬박 매달려 1호 차를 만들었다. 도면 속 자동차를 현실에서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 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첫 시동이 걸리는 순간, 내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우리가 함께 땀 흘려 해냈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회사는 굴곡 있는 역사의 시간 속에 이름도, 주인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세대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시절부터 묵묵히 땀 흘려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잉 대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행동의 폭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사회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과잉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인천의료원에서 완치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인천의료원 감염관리실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의료진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1

Dear doctors and all of medical works.
I am writing to express my most sincere gratitude for what you did for me when I suffered this disaster.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Since my symptoms were not so obvious, I can not imagine that without your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professional attitude, what will happen to me and my family.
I have been deeply moved by your neighborliness. You gave me meticulous care. As the saying goes in China, 'the healer has benevolence' (医者仁心), to me, you are more than that. All of you are my heroes, and I will never forget this experience. I will learn from you and try my best to help others for the rest of my life. Thank you and your government once again for all you did for me. If there comes a day when we get over this illness, welcome to my hometown. You will always be my honored guests and best friends.

Yours truly

2020/2/10

1.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중국 여성의 손편지.
2.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CCTV로 관찰하고 치료했던 나혜경 수간호사.
3. 인천의료원 입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2



3

꾸준한 대비로 가능했던 차분한 의료 대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중국인 환자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은 지난 1월 19일.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견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뒤에는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상태가 점차 호전돼 지난 2월 6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그는 퇴원 하루 전, 자신을 치료한 의료진에게 직접 쓴 영문 편지를 전달했다. 그동안의 치료 과정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중국어로 작성한 뒤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다시 고쳐 적었다고 한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고맙게 여겨줘 오히려 감격했죠.” 나혜경 인천의료원 수간호사는 그동안 꾸준히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반 환자를 돌볼 때와 다른 점은 매번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방호복을 입고 고글과 마스크, 두건, 신발, 장갑까지 갖춘다는 것. “보호 장비를 갖추고 병실에 들어가면 온몸이 땀에 젖고, 고글에 습기가 차서 시야가 흐려질 때도 있죠.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식사 반입과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까지 모두 의료진이 담당하다 보니 체력적인 소모가 많았어요.” 그래도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3교대로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CCTV로 관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의료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총만 안 들었지,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보호복을 입을 때 걸리는 시간은 20분.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보호 장비를 벗을 땐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 단계에 손소독을 하면서 탈의하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감염병 예방 위한
공공 의료 강화 필요

“저희는 2009년부터 음압병동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 세계를 강타한 메르스와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를 국내에서 처음 진료한 경험도 있고요. 이미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긴장은 했지만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인천의료원이 1인실로 7개 병상의 음압병동을 갖추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의료원 내에서 다른 환자나 보호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 감염내과 전문의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음압병실도 부족하고요. 감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공공 의료 기관이 제1선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지요. 재난적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공공 의료에 대한 인프라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코로나19 치사율이 메르스보다는 낮지만,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에서 감염 발생률이 꺾이면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지만, 잠복기의 환자가 다시 발생하는 2차 반등이 없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이력과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던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코로나19는 검역 및 격리 중심의 방역 단계를 지나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로 전방위 방역 진료 체제로 국면 전환을 맞이했다. 최전선에서 신종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는, 시민들도 사회적인 동요보다는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기도 한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의료진이 말하는 코로나19 수칙

손을 깨끗이 자주 씻자

손은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닦는다.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점막이다. 눈, 코, 입 등 점막이 모여 있는 얼굴을 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는다.

의심 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

마스크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염될 수 있는 마스크 바깥쪽은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시점에는 늦추지 말고 반드시 방문하자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나 1339로 연락한 후,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지하철 방역.

인천시, 더 촘촘하고 단단한 방역 대비 태세 돌입

인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철통 방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긴급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 인천경찰청 간 핫라인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10개 군·구보건소 및 20개 선별진료 의료기관과도 협력해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예산 27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 수칙, 선별진료소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모든 공공기관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에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 확인 후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천종합터미널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긴급 휴관하고 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밀집하는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도 전면 중단했다. 이외에도 인천의료원, 인천직업사범원, 인하대병원, 길병원을 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관도 확대 충원해 군·구에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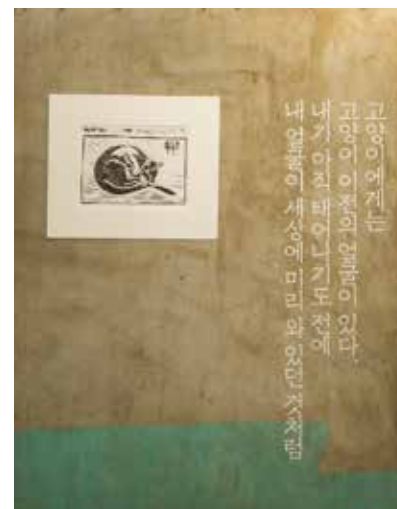
떠날 수 없는
도시에서,

진주를 닮은
시를 쓰다



시인에게 인천은 한번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 도시의 풍경은 아프도록 남루했고, 삶은 고통스럽게 슬펐다. 떠나고 싶었지만 번번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도시에서, 시인은 어린 마음을 할퀴는 거친 모래 같은 아픔을 곱씹어 진주를 닮은 시를 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이설야 시인의 어린 시절은 궁핍했다. 동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던 그 시절의 기억은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월셋집이 모여 있는 화평동 뒷골목은 장마가 지면 집안까지 온통 물이 들어차 ‘뚱바다’와 이어질 듯했다. 건너편 수문통시장은 가난한 아이들의 거친 놀이터였다. 뽑기와 뽕튀기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너머로 보이는, 개잡는 집에는 막 잡은 개 사체가 매달려 있곤 했다.

시인은 가난 속에서 아프게 성장했다.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대성목재 근처에 있는 작은 제조 회사에서 채고와 영업 관리를 했다. 한동안 싫어도 주어지는 대로 살았다. 하지만 마음엔 온통 시뿐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은 기어이 오랜 꿈을 이뤄냈다. 다만 인천을 벗어나겠다는 바람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인천에서 돈을 벌고,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등단했다.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곳은 난생처음 인천을 떠나 머물던 중국이었지만, 그의 시는 인천을 벗어나지 못했다. 남루하고 오래된 도시의 고달픈 삶은, 그의 가슴에 쌓이고 쌓여 그대로 시가 되었다.

시인 이설야는 이제 더 이상 인천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빛나는 시가 되어, 뒷골목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가만히 스며든다.



새 작업실 ‘수봉 정류장’에서 이설야 시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결국 문학을 전공하고 시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조도 하고 무역도 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언제 이곳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래도 일은 참 열심히 했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잘해주고 그럭저럭 재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은 어디까지나 생계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문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말로 인천을 벗어나야겠다 싶어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알아보다가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행을 포기하고 인천에 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인하대학교 국문과가 교수진과 교과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난 서울 갈 사람은 아닌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대학원 공부도 제 마음에 차진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 시를 쓰기 전에 세상 모든 시를 다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세상에 없는 나만의 시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우연이라도 남의 시와 비슷한 건 절대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원 공부하는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 계속 나에게 오려고 하는데도 계속 억누르며 지내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나요? 난생처음 인천을 벗어났을 때, 시가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서울과 문예창작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지도 교수님 권유로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를 써야 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 힘이 들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인천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돌아가셨을 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중국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습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돌아와서도 계속 쓰고요. 시를 쓰다 보니, 헛일만 같던 대학원 공부가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시를 끄집어낼 힘을 키운 거지요.

interview

시인 이설야는 이제 더 이상
인천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빛나는 시가 되어,
뒷골목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가만히 스며든다.



이설야 시인의 시집
<우리는 좀더 어두워지기로 했네>

드디어 2011년에 ‘백마라사’로 등단하고, 2016년에 첫 시집 <우리는 좀더 어두워지기로 했네>를 냈습니다. 등단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인천작가회의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예지 <작가들>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기획해서 채워가는 것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또 평소 시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작가들> 덕에 다른 장르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6년쯤 하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호를 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에 몰입해 보고요. 얼마 전엔 작업실도 구했습니다.

그동안은 작업실 없이 일했나 봐요. 새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2014년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스 작가로 1년 정도 있었고, 그동안은 집과 도서관, 카페가 제 작업실이었어요. 새 작업실은 배다리 ‘나비날다 책방’ 창산별곡 님이 만든 창작실험실 ‘수봉 정류장’이에요. 한번 와보라는 얘기를 듣고 갔다가 몇 시간 있어보고 바로 결정했지요. 창작자들이 모여 공간을 같이 쓰면서 여러 시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냥 작업실이 아니라 ‘창작실험실’이라는 게 끌리더라고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지난해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전시회 때 선보인 판화 작품을 보면서 다른 예술 장르에도 열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스 덕에 다양한 작가를 만났고, 실험적인 시도도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 춤과 결합한 기획은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미술은 워낙 좋아했는데, 판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중국에서 전장을 배우면서부터예요. 문자 언어에만 갇혀 있고 싶지 않아 이미지하고 결합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은 좀 회의적이에요. 이미지랑 같이 있으면 언어가 포섭되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내 장르에 충실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가 이설야의 작품에 인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애증(愛憎)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벗어나기를 꿈꿨던 어린 시절에는 ‘미움’이 컸다면, 지금은 ‘사랑’이 더 커요. 작품을 쓰면서, 외면하고만 싶던 인천의 기억에 애착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아프고 슬픈 이미지에서 태어난 시일수록 더욱 애정이 갑니다. 여인숙에서 알게 된 다섯 살 소녀의 눈빛을 이야기한 ‘등화관제’, 죽은 고양이를 보고 쓴 ‘네 얼굴에 고양이 발자국 여럿’이 그런 작품들이에요. 제 안에 이런 결핍이 없었다면 예술도 없었을지 모르지요.

시인 이설야의 이야기는 인천시 발행 단행본 <인천, 사람>에도 담겨 있습니다.
책을 받고 싶은 분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SORAE WETLANDPARK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

스마트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점점 빠르게만 변해가는 세상 속, 조금만 더디게 가자 속삭이며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이 새삼 반갑다. 뭐가 그리 급한지, 도로 위를 뿡뿡 달리는 차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잠시 쉬어 가라 손짓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내일을 이야기하는 홍콩습지공원을 통해 진정한 공존을 배운다.

글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인천의 자연이 지닌 보배 중 보배다.

HONGKONG WETLANDPARK



인천이 가진 생태와 역사, 문화의 보배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면적 350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갯벌과 갯골, 폐염전 등으로 조성된 생태 공원이다. 이곳은 해양 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서구식 염전을 처음으로 도입한 서남부 최대 염전으로서의 역사성과 문화성까지 지니고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내에는 물새들의 휴식을 위한 개방 구역과 자연 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어 습지 내 각종 동식물 관찰이 가능하다. 광활한 갈대밭과 풍차, 산책로, 쉼터 등도 만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식처로도 손색없다. 생태적 보전 가치 또한 매우 높다. 해양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통통마디, 개민들레, 칠면초 등 염습지 식물과 멸종 위기종 흰발농게, 저어새 등 다양한 동식물들의 생물 군락지이자 철새 도래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급 멸종 위기 야생동물 노랑부리백로, 매, 저어새, 흰꼬리수리를 포함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8종과 천연기념물 13종, 기후 변화 지표종 14종이 관찰될 만큼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생태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모두 지닌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의 자연이 지닌 보배 중 보배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위치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77(논현동)

면적

350만m²

시설

폐염전, 생태 학습장, 자연 학습장, 염전 학습장, 갯벌 체험장, 담수 연못 등

홈페이지

park.incheon.go.kr

문의

032-435-7076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 최대의 생태 힐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콩습지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공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VS



홍콩습지공원

위치

Wetland Park Road, Tin Shui Wai, New Territories

면적

60만m²

시설

습지 보호 구역, 습지 인터랙티브 월드(3D 영화, 트릭 아트, 극장, 실내 놀이 공간) 등

홈페이지

www.wetlandpark.gov.hk

문의

+852-3152-2666

세계적 수준의 에코투어리즘 공원

홍콩습지공원과 인근의 마이포자연보호구역MaiPo Nature Reserve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습지 공원이자 에코투어리즘 공원으로 손꼽힌다. 소래습지생태공원과 같이 주거 단지와 인접한 이곳은 늪, 갯벌, 맹그로브 숲 등이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와 습지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홍콩습지공원이 에코투어리즘 공원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국경관연구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건축물 대상’을 수상한 방문자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는 점이다. 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방문자 센터는 습지를 체험하기 전, 습지가 우리에게 주는 생태적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홍콩습지공원의 상징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보온성 높은 재

활용 건축 자재로 지어진 방문자 센터는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운영되며, 빗물을 이용한 절수형 변기를 갖추고 있는 등 친환경 공원에 걸맞은 인프라를 자랑한다. 이를 통해 습지 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쉽게 습지를 접하고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생태를 우선한 자연 그대로의 자연

마이포자연보호구역과 홍콩습지공원의 탐조대 역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사람과 새들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놓은 홍콩습지공원은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림막을 만들어 접근을 통제하고, 오직 탐조대에서만 새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탐조대조차도 사람의 접근과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도록 나무집과 같은 형태로 조성해 새들이 사람의 행위에 반응해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국식 탐조대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홍콩습지공원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 생태적 관점을 가장 우선에 두고 구성됐기에 오히려 더 생생하게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자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수도권 최고의 생태 공원을 꿈꾸며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빠르게 육상화가 진행되면서 해양 생태계나 기수 지역 생태계가 소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곳 갯벌을 습지 보전 지구로 지정하고, 나아가 습지 보전 지구인 시흥 갯골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물왕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장장 22km의 구간을 정비해 수도권 최대의 생태 힐링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반갑다.

습지 내에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금지되고, 다만 폐염전을 활용한 북카페와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원칙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염전 산업의 역사성도 인천 문화의 소중한 가치인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전 상태인 갯벌로의 생태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관광 자원’으로 습지 공간을 보존하고자 노력했기에 홍콩습지공원이 세계적인 에코투어리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홍콩습지공원보다 더 나은 역사성과 생태를 자랑하는 곳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진이 이어진다면 관광과 생태 교육이 한번에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 공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두 바퀴로 떠나는 봄 마중

불거리, 즐길 거리 많은 인천, 그 안에서도 진주처럼 숨은 명소가 더 있는데. 구석구석 보물처럼 반짝이는 그곳을 특별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와 함께 떠나는 당신이 몰랐던 인천. 그 세 번째는 자전거로 미국 땅을 횡단한 인천의 젊은 이 이진호 씨가 가이드하는 봄맞이 인천대공원 라이딩이다.

클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대공원

연간 약 4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천 대표 공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휴식처이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위치 남동구 무네미로 236

주요 시설 수목원, 습지원, 숲 학교, 썰매장, 캠핑장, 호수, 환경미래관, 목재문화체험장, 운동 시설, 공연 시설, 휴게 음식점, 주차장 등
문의 032-440-5818

잠깐! 코로나19 바깥활동 행동 수칙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은 한 번에 30초 이상, 자주, 비누로 씻어주세요.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분은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66만5,000m². 인천대공원 구석구석은 보물 같은 명소들로 채워져 있다.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원

계절은 봄이지만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이진호 씨는 모두의 봄을 재촉하는 마음으로 인천대공원을 자전거로 달려볼 참이다.

“인천대공원은 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른 감이 있지만, 요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 시민 여러분께 간접적으로나마 기분 좋은 풍경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시민 중 인천대공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266만5,000m²에 달하는 공원 구석구석 보물처럼 숨은 크고 작은 명소까지 모두 들여다본 이들은 많지 않으리라.

놀이동산에 온 듯 설레는 기분으로 페달을 밟는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너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미 도착해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경쾌하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인천대공원은 이름값을 한다. 왼쪽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의 모습이 스친다. 오른쪽으로 아기자기한 공원이 반긴다. 속도를 낸다. 그럼에도 눈에서 풍경이 달아나지 않는다. 자전거의 매력일까. 이후 건호 씨가 잠시 페달을 멈춘다. all_ways_INCHEON. 이제는 친근한 도시 브랜드 조형물 뒤편으로 넓은 호수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시름은 잠시 잊고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온다.

“1995년에 조성된 호수 공원인데, 담수량이 무려 5만 톤이나 된다고 해요. 왜가리와 백로부터 잉어, 붕어, 가물치, 참깨구리, 자라, 물방개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죠. 도심 속에서 이런 곳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인천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백범 김구 선생과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동상을 모신 백범 광장 입구.

白凡廣場

대자연 속에 만나는 가치 있는 역사

본격적인 라이딩을 즐길 시간. 시원스레 뻗은 느티나무길을 달린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호수 정원의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린다. 아직 새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았지만, 초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는 사람들, 자랑하듯 그들을 앞지르는 자전거 무리의 모습이 흥미롭다.

“여유롭게 산책이나 라이딩을 즐기기에 오히려 이맘때가 좋아요. 완전한 봄이 되면 이 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죠. 봄꽃 구경은 기본,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한 곳이라 새벽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요.”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 조각 정원에 다다른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예술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쾌적한 자연과 어우러진 조각 작품들이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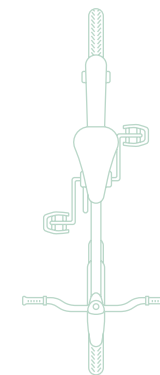
자전거를 멈춰 세운 건호 씨가 어디론가 향한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도착한 곳은 백범 광장.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듯하다.

백범 김구 선생과 인천의 남다른 인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2년여간 수감됐고, 1911년 안악 사건으로 5년간 투옥됐을 때도 1914년 다시 인천으로 이감되어 인천 축항 공사 노역에 동원됐다. 불굴의 민족 지도자로 단련되어 가던 지난한 과정의 한 장면을 인천과 함께한 셈이다.

이건호 씨가 백범 동상을 우러러보고 있다.
인천 감옥 수감, 축항 공사 강제 노역 등 백범 김구 선생과 인천은 남다른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



INCHEON GRAND PARK



인천대공원을 나서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인천 대표 라이딩 코스 중 하나다.



삶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

자전거를 끌고 무장애나눔길로 접어든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산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새삼 반갑다.

“인천대공원은 관모산과 상아산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 코스도 잘 갖춰져 있죠. 산책이나 라이딩도 좋지만,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천대공원이 가진 매력 중 하나예요.”

바퀴가 다시 힘차게 돌아간다. 울퉁불퉁 흙길을 따라 갈 대밭을 지나 자그마한 하천에 다다른다. 장수천이다. 이 길을 따라 곧장 가면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닿을 수 있는 인천 대표 라이딩 코스다. 마음이야 그곳까지 달리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기로 한다. 낡은 자전거 때문이다.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그의 자전거는 건호 씨가 2017년 4월부터 3개월여간 미국을 횡단할 때 함께했던 동반자다.

“LA에서 뉴욕까지, 73일을 자전거로 달렸어요. 서른이 되기 전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죠. 태평양에서 출발해 대서양에 도착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해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건호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청년 창업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고양이를 위한 업사이클링 인테리어 가구 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도 당당히 선정됐다. 그 덕에 서구 가좌동에 작업실도 열었다.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다. 반응도 나쁘지 않아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인천을 무대로 꿈을 펼쳐가는 젊은이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홍보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아닐까 해요. 요즘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어 다들 걱정인데, 분명 다시 활기를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취업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에 바빠지는 시기다. 도서관보다는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이 유용하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만만찮은 비용 또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엔 덜컥 사무실을 계약하기도 부담스럽다. 인천에는 취업준비생,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민과 위안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 아이디어 시제품을 스스로 제작해 보고 현실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신이 상상했던 제품을 얼마든지 무료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메이커 팩토리는 시설 면에서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창업진흥원과 인천시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인하공업전문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이혁준 융합교육지원센터장

메이커 팩토리에서는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이 실물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컴퓨터로 설계하는 것과 실제로 결과물로 나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3D 프린터로 작업물을 만들면 오류를 잡아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김영중 대학생

Info.
메이커 팩토리
미추홀구 인화로 10 ☎ 032-870-2581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
연수구 갯벌로 12 ☎ 032- 835-9768
청라 드림 메이커 스페이스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 032-561-7243
검단 메이커스 Lab
서구 완정로 188번길 3 ☎ 032-569-2335

상상이 현실이 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이럴 땐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보자.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 아이디어 시제품을 스스로 제작해 보고 현실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신이 상상했던 제품을 얼마든지 무료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창작자가 창작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보도록 장비,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곳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를 비롯한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지역별로 여러 곳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이다. 특히 인하공업전문대학 안에 자리한 ‘메이커 팩토리’는 교육용 3D 프린터를 무려 51대나 보유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 교육은 물론이고 전임교수로 이뤄진 강사진이 정기적으로 3D 교육을 진행한다.

일상에
지친
그대여
청춘은
0%원하
지
않는다

-
-
-
-



창업 전에 미리 체험하는 ‘꿈이룸’

창업을 꿈꾸지만 실제로 점포를 운영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꿈이룸’에 눈을 돌려보자. 창업 이론 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점포 운영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해 보는 체험 점포 ‘꿈이룸’이 지난 1월 인천에 문을 열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 점포 ‘꿈이룸’은 전용 면적 170㎡ 규모로, 점포와 회의실, 다용도실 등을 갖췄다. 현재 예비창업자들이 앞으로 4개월간 점포 운영을 체험하면서 전문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꿈이룸’에는 카페 4곳, 소매업 7곳, 문화 서비스업 2곳, 교육 서비스업 1곳, 일반 서비스업 1곳 등 다양한 사업 점포가 운영 중이다.



‘꿈이룸’ 카페에 입점한 조성춘, 최민주, 빈윤희, 임수형 씨(왼쪽부터)

회사를 다니다 창업을 시작하려니 아무리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막상 두렵더라고요. ‘꿈이룸’에서 점포를 운영해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뉴도 손님들 반응을 살피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최민주 비건 베이커리 카페 운영자

이곳에서 매일매일 저의 단점과 보완할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해요. “그냥 바로 장사 시작했으면 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기는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빈윤희 꽃카페 ‘코따루’ 운영자

Info.
부평테크시티 1층
☎ 032-204-3012



Info.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2층
☎ 032-710-0501
🌐 www.dreamtown.or.kr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사무실 임대 및 취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제공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일단 방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운영아 교육팀장

청년창업지원센터 ‘꿈꾸는 청년창업 마을’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공간이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된 센터로, 사무실을 무상 제공할 뿐 아니라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청년의 소득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12개 청년 창업가가 입주해 있다. 또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이끄는 청년 주도적,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마을 콘셉트로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트렌드에 맞게 조성된 다양한 회의실과 미팅 룸은 모임, 세미나, 강연을 위한 대관이 가능하다. 특히 사진 및 영상 촬영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상품 촬영은 물론이고 1인 방송이나 프로필 촬영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취업

일자리를 찾는다면 ‘잡스(Job's) 인천’

Info.
남동구 예술로 126 Link 126빌딩
☎ 032-438-3007~9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날 조금만 도와준다면 긴 터널 같은 구직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럴 땐 ‘잡스 인천’으로 가보자. 잡스(Job's) 인천은 구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정부와 인천시, 민간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해준다. 그 외에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 스터디 공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룸 및 동아리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진로 컨설턴트 3명이 상주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알려주고 개인별 맞춤 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또 현장 전문가 특강,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잡스 인천은 취업을 원하는 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죠.
-이혜영 상담사

무료로 스터디 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잡스 인천’을 찾았어요. 사실 이런 스터디 룸을 몇 시간씩 이용하려면 1인당 5,000~6,000원은 지불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취준생한테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인데, 무료라니 감사하죠.
-정아름 취업준비생

청년들을 위한 힐링 아지트
‘유유기지 부평’

청년들이 모여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꿈꿀 수 있도록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단체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 ‘유유기지’. 최근 갈산역 인근 부평산업단지 내에 2호점이 문을 열었다.

유유기지 부평에는 다양한 용도도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회의실, 셀프카페, 청년 정책 안내 창구, 협업 창구, 휴게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전자칠판이 설치돼 회의하면서 메모하기 적합한 회의실 ‘연결고리’, 소규모 미팅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브로’, 오픈 공간 ‘가온누리’, 힐링 릴렉스 룸인 ‘보호구역’ 등 모든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복합기와 3D 프린터를 비롯해 커피도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신청 시 1개월 단위로 개인 사물함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Info.

부평구 부평대로 301 116호 ☎ 032-363-3141~3 ④ www.innu.kr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9시(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일요일)
※ 스터디 룸 대관 시 하루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청년들이 모여 관계를 만들면서 즐겁게 본인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청년 모임 지원과 취창업 청년 특강 등 청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민아 유유기지 부평 센터장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려면 스터디 룸이 필요한데, 취업준비생이 스터디 룸을 대여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유유기지 같은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곳이 점차 늘어나면 좋겠어요.

- 양정호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는
‘인천청년센터’

인천청년센터는 만 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 공간이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2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4인석의 스터디 룸 4개와 8인석의 스터디 룸 1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회의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 룸이 마련되어 있다. 세미나 룸은 빔프로젝터도 갖추고 있다. 모던한 카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오픈 스터디 공간에는 PC와 스캐너, 복사기, 정수기 등의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또 테이블 곳곳에는 콘센트도 설치되어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특히 오픈 스터디 공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특강도 종종 진행되어 각계 취업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Info.

남동구 문화로 131 지하 2층 ☎ 032-460-4832

청년의 꿈,
인천시가 응원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탐색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청년들의 꿈을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봤다.

면접청년 위한 ‘드림나래’

청년 취업의 최종관문 통과 지원을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 지원 사업인 ‘인천 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서비스’를 올해도 진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지가 인천인 구직청년(만 18세~34세, 군복무기간 산정 최대 만 39세)으로 연간 1인당 3회까지 대여 가능하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2

구직청년 위한 ‘드림체크카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드림체크카드를 운영한다. 인천 거주 만 19~39세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드림체크카드는 3월 1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32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목돈마련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청년재직자 장기근속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을 올해도 지원한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인천시가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것으로, 올해는 신규 4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청년 자산형성 위한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상품이다. 4월 1일부터 1차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시 자활증진과 032-440-1543

저축으로 희망 마련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청년(만 15세~34세) 중 신청 당시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대상자에게 매월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기간은 3년으로, 대상 청년은 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시 자활증진과 032-440-1543

취·창업 재직 청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씩의 월세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자로, 약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3

기업 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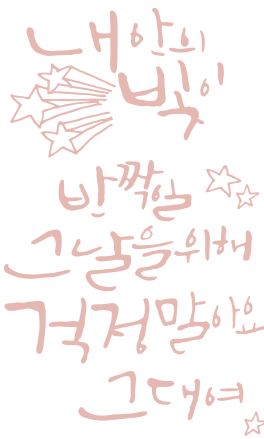
인천 소재 직업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천 우수기업 산업현장에서 진로를 탐색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인재들에게 직무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설계 및 취업 동기 부여 등 전문인력 양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44

숙련기술인 기술 전수사업

기술명장에게 우수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숙련기술인 기술 전수사업’을 추진한다.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해당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명장, 우수 숙련 기술인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42



공기업 시험을 준비 중인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도서관에서는 자판 소리 때문에 취업을 위한 자소서 쓰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스터디 룸도 무료라서 자주 이용합니다.

- 차민지 취업준비생



음악이
살아 숨 쉬던
그 동네
길을 걸으며

글 김종석

내 어린 시절은 화도유치원에서 시작된다. 부친께서 목재 사업 때문에 내가 네 살 때 인천으로 오시면서 지금의 화도교회 근처 화수동에 화도유치원 건물을 구입하셨다. 한옥 사랑채를 교회에 임대해 남궁 목사님이 초대 화도교회를 창립하도록 도움을 주셨다. 예배드릴 때 교회 안에 군정 때 쓰던 국방색 휴대용 오르간 소리와 함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가 울려 퍼지니 네 살짜리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오르간 앞에 서서 공기 폐달도 밟고 건반도 누르느라고 애를 썼다. 다행히 주일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결국은 ‘학교종’, ‘반짝반짝 작은 별’ 등을 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찬송가를 섭렵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 신비한 금빛 오르간을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다니....

그 후 전도사님으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아 인천중학교 때는 교회 중등부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게 되었고 제물포고등학교 때는 ‘바흐 인벤션’, ‘베토벤 소나타’, ‘쇼팽 임프로뮈투’ 등을 연주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 연어 치기가 어려워서 송현 성결교회, 제물포고 음악실 등을 전전하며 새벽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새벽, 피아노를 친다고 교회 목사님과 음악실 순찰 돌던 미술 선생님께서부터 뺨을 맞은 기억이 난다.

인천 출신으로 초대 인천시향 지휘자, 단국대학교 음대 교수(학장) 역임. 대한민국 작곡상 등을 수상한 작곡가이자 지휘자, 교육자로서 현실 밖으로 밀려난 인천의 클래식 음악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1974년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안내 리플릿.

아! 그 새벽길... 그 후 고2 때까지 아버지 권유로 상과대학에 진학할 생각으로 음악 공부를 접고 입시 준비를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무렵 무심코 ‘성덕관’ 강당 앞길을 지나다가 낮익은 피아노가 눈에 띄어 ‘소녀의 기도’를 즉흥곡처럼 감정을 충분히 넣어 연주했는데 갓 부임해 오신 젊은 음악 선생님이 들으시고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며칠 밤을 고심하다가 그분께 작곡을 배워 서울대 작곡과에 가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곳이 바로 제물포고 정문 옆에 있는 ‘성덕당’ 근대 문화재 앞길이다.

그 당시 서울대 작곡과는 10명을 선발했다. 작곡과 학생들은 피아노 이외에 부전공으로 현악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서 오케스트라 학점을 따야 했다. 지휘는 임원식 교수가 했는데, 그때 ‘지휘’라는 색다른 마법의 막대기를 발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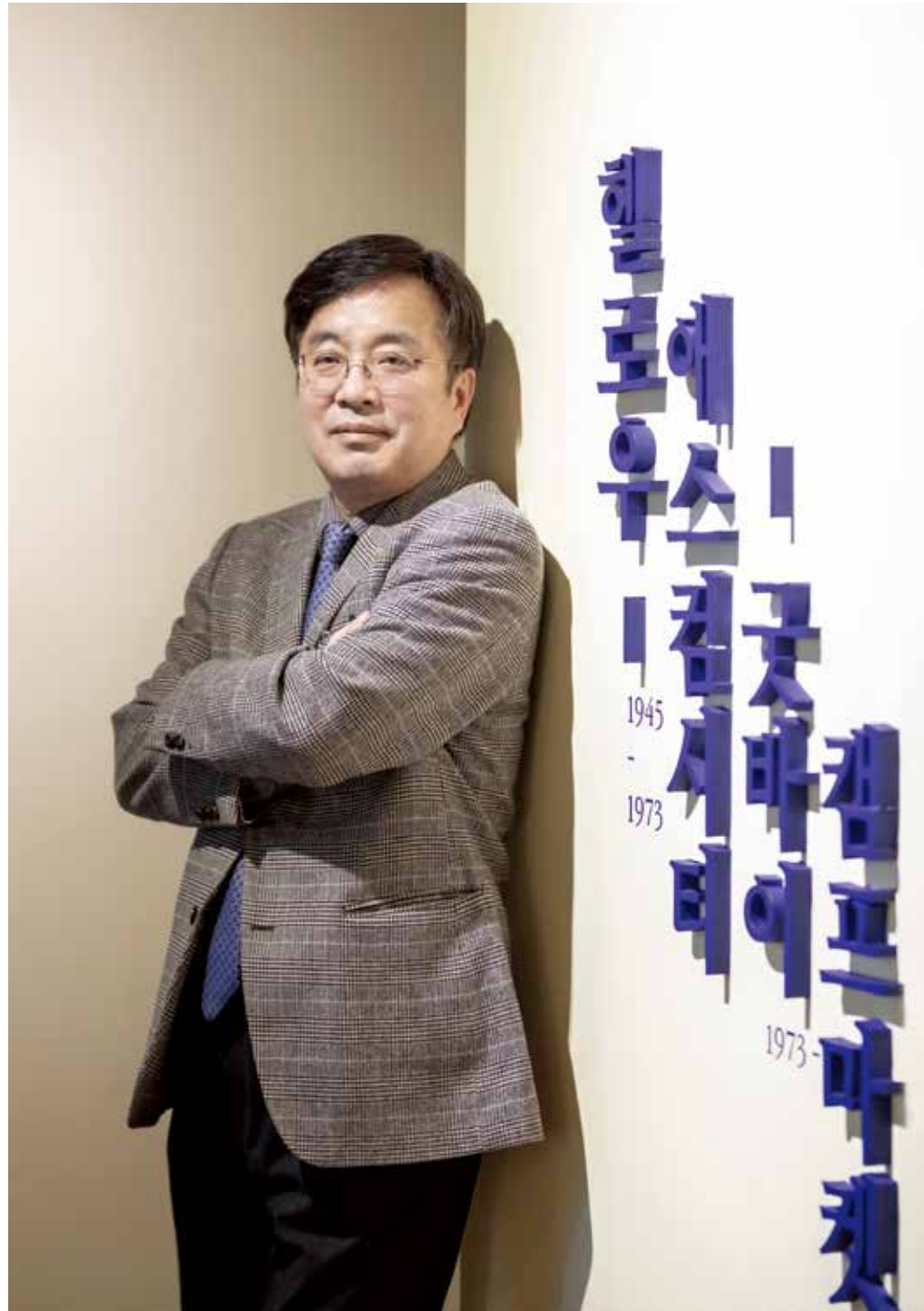
졸업 후 인천에 있는 미션 스쿨에서 5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을 했다. 지금의 신포동 주민센터 건너편 인천시 공보관(현 월디어린이집)을 빌려 주머니를 털어가며 열심히 연주 준비를 했다. 연습이 끝나면 신포주점에서 평론가가 되었다가 연주가도 되었다가 하면서 열변을 토하곤 했다. 인천엔 1950년 6·25전쟁 때 창단한 육군정훈악대 덕분에 앙상블 경험에 있는 연주자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는 돌아가며 했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결국 지휘를 맡게 되었다. 1947년 추운 겨울에 박수덕 씨가 인천관현악단을 애관에서 창단했고, 1962년에 작곡가 최영섭 선생이 인천음악애호가협회 관현악단을, 1965년 초에 인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선배님들과 함께 신포동 인천시 공보관에서 창단하게 되었다. 그 후 윤갑노 시장 때인 1966년 6월 1일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창단했는데 바로 지금의 인성여고 체육관 자리인 ‘제1시민관’에서였다.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 인천여고에서 빌려다 무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온 단원이 동원되었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다.

요즈음은 응봉산 자유공원 가는 언덕길(일명 ‘악데이’ 길) 초입 송학로 19번길 서재에서 수많은 사연들을 만나 그들과 교감하며 살고 있으니 아직 외롭지 않다. 그들 가운데는 교수도, 연주가도, 지휘자도 있으며 학생도 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들과 자주 만나 음악을 담론하고 작품도 쓰고 앙상블도 지휘하고 싶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정원에 꽃나무 하나 더 심어야겠다.

“부평 미군부대, 시민공원 만들어 역사문화도시 꽃피워야”



취재 영상 보기



시민 시장
박명식

•

자신이 밟고 살아가는 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부평 미군부대는 ‘금단의 땅’이었다. 1년에 꼭 한 번, 추수감사절 때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설치하는 군무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학 시절엔 캠프마켓에서 ‘알바’를 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결근하는 군무원이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였다. “제가 어렸을 때 부평엔 논밭 아니면 미군부대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과 미군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지요.”

하촌(현 부평5동)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살아온 박명식(59) 씨는 부평 스토리텔러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 부평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고향의 얘기를 들려주는 건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행복이다. 조병창 건설 전 무슨 일이 있었나, 캠프마켓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부평공단을 만든 진짜 주체는 누구일까. 학교에서 혹은 역사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그의 설명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재미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토지 수탈을 위해 가장 먼저 토지 조사를 시작한 곳이 부평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땅은 애국자와 친일파 간 10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된 땅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평 이야기를 그는 ‘한 보따리’ 품고 있다. 평생 부평에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의 보따리다. 그도 그럴 것이 부평동초·부평중·동산고·성균관대를 나와 농협에서 근무하고 개인 사업을 할 때도 그의 삶터는 늘 부평이었다. 같은 인천인데도 부평은 인천과 정서적으로 분리된 적이 있었다. “1970년대 부평에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 송림동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동구 쪽에 사는 아이들이 ‘개 건너’ 사람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평은 농경문화권이고 인천은 해양문화권이라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싸움도 하곤 했는데 야구라는 구심점이 있어 나중엔 다들 잘 지냈지요, 허허.”

인천시와 시민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캠프마켓 반환이 결정된 이후 박 씨는 부쩍 바빠졌다. 부대 내 건물을 비롯해 역사 등 캠프마켓을 훤히 알고 있다 보니 견학할 때 해설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반환받은 캠프마켓은 어떻게 가꿔가는 게 좋을까.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면 부평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138개 건물이 있는데 안전검사를 통해 남겨둘 건물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 주변 철길은 테마 철도로 운영하고 담벼락도 일부를 남겨두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 겁니다. 부대 안에 지하호가 몇 개 있는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가 부평 스토리텔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정주 의식을 심어주고 싶어서다. “자신이 밟고 살아가는 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스스로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조끼 데조

1908

헝가리 의사가 본
제물포

1

Bozóky Dezsó 1908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수평선 너머로 볼 수 있었던 푸른 산으로 덮인 조선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의 승계 기간이나 내부 소요 사태 중에는 외국 군함이 조선에 입항하기 어려웠다.”

대한민국과 헝가리는 1989년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으나 그 시작은 1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1892년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몇 명의 헝가리 사람이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군의관 보조끼 데조 Bozóky Dezsó도 그중 한 명이었다.

보조끼는 1871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주요 도시인 너지바라드 Nagyvárado에서 태어났다. 1905년 오스만 제국을 여행하면서 처음 사진을 접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군 소속의 군의관으로 1907년 군함 ‘페렌츠 요제프 I세’호를 타고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갔다. ‘페렌츠 요제프 I세’호는 대한제국에 입항하려 했으나 쉽게 들어올 수 없었고, 1년 6개월이 지난 1908년에서야 중국 취푸曲阜, Qufu에서 출항해 제물포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파른 언덕의 모서리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일본 찻집과 정원이 있다. ... 마치 요코하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잘 알려진 깔끔하고 높게 솟은 일본식 집들이 사방에 있다. ... 제물포에는 한국 동네도 있으나 중국식 높은 가옥과 일본식 목조 주택이 점점 많이 들어서고 있다.”

보조끼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본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는 제물포를 보면서 일본의 요코하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보조끼가 본 인천은 일본식 집,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노래, 거리에서 들려오는 게이샤 성가가 들려오는 곳이었다.

이후 보조끼는 서울, 거문도, 부산 등지를 방문한 뒤 일본을 통해 부다페스트로 돌아갔다. 그는 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쓴 일기와 편지를 엮어 <동아시아의 2년> Két év keletáziában이란 제목의 여행기를 출판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남은 여생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냈다. 1957년 사망하기 전 자신의 사진과 일기 등을 부다페스트에 있는 ‘홉 페렌츠 동아시아박물관’에 기증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보조끼 데조의 사진들을 3월 17일(화)~5월 31일(일) 갤러리 한나루에서 전시한다. 17일 오후 3시 시립박물관 로비에서 개막 행사가 시작되며 헝가리 무용단의 공연과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1 제물포 거리

2 제물포항

3 유곽 입구

4 흰옷을 입은 두 여인



2



3



4

전시명 보조끼 데조 1908 : 헝가리 의사가 본 제물포
일시 3월 17일(화)~5월 31일(일)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개막 행사 3월 17일(화) 오후 3시 / 시립박물관 1층 로비

IMAGE NEWS



#학교 휴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코로나3법 국회 의결
#검사 거부, 격리 위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처벌

01



#유증상자-자가격리, 1339 | 119 | 032-120 우선 신고
#일반인-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 가리기, 눈·코·입 안 만지기

02



#24시간 비상 체제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충격 방역 시행 #가짜 뉴스 대응
#소통협의회 운영

03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위해
#인천시,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 총력 대응 태세 구축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 119 | 032-120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인천 뉴스 +

- + 우리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철통 방어 체계를 가동 중이다.
- + 우리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2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 +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천e음의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조정한다.
- + 우리 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UNDDR)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았다.
- + 우리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 우리 시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단체 지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NEWS BRIEF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총력 대응

우리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철통 방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를 휴교하고, 학원 휴원을 권고했으며,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 돌봄을 시행했다. 또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기관도 긴급 휴관하고, 실내에서 접촉이 많은 화상경마장, 화상경륜시설, 화상경정장 등의 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시민들에게도 당분간 예배 등 종교활동 자제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외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신천지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신천지교회 및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령하고,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 다중이 밀집돼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서를 제외한 시 산하 전 기관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전 직원이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장기교육 중인 공무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시 투입됐다.

시는 “앞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짜뉴스가 아닌 인천시가 실시간 제공하는 소식에만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 대변인실 032-440-3075

커피전문점 내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수준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권고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전체 지자체에서 상황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64

소상공인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리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2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점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취급 금융기관은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인천시에서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630만 매 지원

우리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 15만7,808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연 40매씩 총 630만 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군·구와 협력할 방침이다.

시 복지정책과 032-440-2934

입국 중국인 유학생 콜밴으로 학교 이동

우리 시는 대학교 개강에 맞춰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콜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시는 중국인 유학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속 대학교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이동 시켜 접촉 경로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기숙사 등지에서 자가 격리토록 조치를 취했다.

시 재산관리담당관실 032-440-2702

인천e음 3월 1일부터 캐시백 10%로 상향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천e음의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조정한다.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월 50만원 이하 결제 시 캐시백이 10%로 상향되고,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결제 시에는 기존 캐시백 1%가 지속 지원된다. 한편 이달부터 ‘부평e음’과 ‘계양e음’ 카드가 발행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국내 최초 UN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인증



우리 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았다. UNDDR 롤모델은 혁신·창조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춰 세계 모범 도시로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초기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개념을 설계에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위험을 실시간 관리하는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시는 교통·침수·재해·미세먼지 등 4개 분야 안전문제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와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 건물과 인구 등 정보를 기반으로 지진 피해의 종합적인 분석·예측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UNDDR 롤모델 도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캔버라, 독일 본 등 26개국 48개 도시가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DDR은 세계 도시들의 재난위험 감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시 안전정책과 032-440-1892

‘혁신행정도시’ 전국 최우수 인센티브

우리 시가 지난 2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이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단체 지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지난해 확보한 교부세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는 지난해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획기적인 혁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을 일 잘하고 즐거운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자발적인 연구 동아리인 ‘혜움’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또 민생규제의 혁신 과제를 전방위로 공모하고 있으며,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6월에는 집중적인 혁신 이벤트 개최를 통해 공직자와 시민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2020 인천 혁신 주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혁신담당관실 032-440-1642

‘영종도에 국립종합병원’ 국회에 건립 건의



우리 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영종도 국립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시는 영종도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등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해외 주요 공항 도시가 공항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종도에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비상사태 대응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재 9만 명인 영종도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19만 명으로 늘고 유동인구도 28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로 늘어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종합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민체감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우리 시는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쪽방과 비주택 거주 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먼저 스프링클러가 없는 낡은 고시원과 쪽방촌 59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는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비용 지원,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시설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건축계획과 032-440-4742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노인 예산 1조원 시대



우리 시가 올해 처음으로 노인 분야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 9,264억원보다 20.6% 늘어난 1조1,176억원으로 정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8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늘려 낮은 노후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6개로 나뉘어 있던 노인돌봄사업은 통합·개편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4만1,09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2

시-인하대병원,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맞손’

우리 시는 인하대병원과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 기관에 선정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인하대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혁신형 의과학자 공동연구사업’ 기관으로 뽑혀 4년간 총사업비 5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주도로 연구 공간·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상 의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진료 시간 경감,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또 임상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료 기기·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강화도 ‘젓새우’ 조업 26년 만에 합법 허용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이달부터 강화도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인 2,420톤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연안 개량 안강망’ 조업은 지난 1994년 치어남획을 막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25mm 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이 된 뒤,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 조업을 해왔다.

시 수산과 032-440-4862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3,250만원 지원

우리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수소연료전지차를 214대 보급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532대로 구매보조금은 대당 3,250만원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04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인천시의 동물관리보호 조례가 8년 만에 개정됐다. 지난 2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동물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 계획 수립 근거와 함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동물복지·생명존중 교육과 홍보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맹견 출입 금지 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인천교, 학익 등 원도심 유수지 6곳 환경 개선

우리 시는 남동1·남동2·삼산·인천교·학익·석남 등 원도심 유수지 6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1,234억원을 들여 남동1유수지 준설과 삼산유수지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25년까지 349억원을 투입해 삼산유수지를 복개하고 남동1유수지 일부를 준설한다. 2단계로 2030년까지 885억원을 들여 삼산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남동1유수지 전체를 준설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끝나면 남동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친환경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삼산유수지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자연재난과 032-440-3362

알고 보면 쉽다! 궁금한 사항

Q&A

코로나19 관련한 팩트 체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다. 가짜뉴스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봤다.

Q. 한 번 사용했던 마스크는 또 써도 된다?
A. NO :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외출 시 한 번 사용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하나의 마스크를 몇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권장 기준은 없지만 상대의 침이나 자기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

Q. 다 같이 쓰는 음식점 수저, 물컵 위험하다?
A. NO : 수저는 제대로 세척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다. 고온에 수저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 다만, 물컵을 공유한다거나 공동으로 국물을 떠먹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Q.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A. YES : 바이러스를 함유한 상대의 침이 눈에 튀어 점막에 접촉하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지만 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침이 눈에 튀어 염려된다면 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코, 비인두 기관, 기관지 등 호흡기이다).

Q.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들 땀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
A. NO :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스스로 자가격리를 시작하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무조건 병원으로 몰려들 경우, 병원 업무량이 폭주해 감염자나 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당일 알 수 있나?
A. YES : 유전자 검출 검사법에 따라 6시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검사 업무량의 폭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교수

COUNCIL NEWS

중국 우호 도시에 위로와 응원 메시지 전달

인천시의회가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시름을 앓는 중국 우호 도시인 다롄시·톈진시·충칭시·후난성 등 4개 도시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국 각 도시 시민을 위로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 국민과 각 도시의 인민대표대회를 응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사오성펑 다롄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은 서한문 수신 다음 날인 14일 인천시의회에 감사 서한문을 보내왔다. 또 코로나19 종식 후 양 도시·국가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경제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인천시의회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찰을 위해 국가 생명과학산업 중심지인 충북 오송을 찾았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함께 지난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의료 분야 국책 사업지로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단지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 송도 지역 내 조성 예정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인천시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 성공을 위한 주요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파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상황실 방문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월 4일 IDC 건물 6층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부서별 대응 상황 및 준비 대책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지난 1월 31일(금)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산업생산구조와 과제’를 주제로 김하운 인천시경제특보 초청 1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민선 7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에서 바라보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역경제가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지역이 바라보는 정책 목표로서의 지역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의 출범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달 조찬 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위, 부평 미군기지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건교위는 ‘캠프마켓’ 1단계 반환공여구역 남측 B구역(11만 3,000㎡)과 주한미군 주둔 지역인 2단계 반환공여구역(21만 7,000㎡)을 점검하며, 미군 부지 내 헬기장, 야구장 부지와 현재 운영 중인 제빵공장 등을 방문해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7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의 영업이 끝나면 8월부터 2단계 구역의 반환 절차가 시작돼 본격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복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의사환자 및 접촉자 등의 가검물 검사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이경호 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후원했으며, 이날 전달식에서 시의회 의장은 “인천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 032-440-6137~8 ② www.icouncil.go.kr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작가의 말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다가올 때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작품 활동을 할 당시 개항장 일대가 새롭게 와 닿았다.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추억을 쌓은 장소와 공간을 재인식했다고 할까.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다가온 시간이었다. 개항장 주변과 중구청 일대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어둡던 시절의 건물들이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 현재의 개발 의지, 소비 욕망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 신도시 개발과 같은 잔혹한 자본의 이해 속에서 처연한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와 나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동기화로 이뤄진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작품에 담았다.



달빛 프리즘 50x35cm, 2016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황원순 남동구 서판로



서지영 부평구 수변로



전호윤 미추홀구 경원대로



서화자 안산시 상록구



김정진 미추홀구 수봉로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 3) 기간 : 2020년 3월 16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장진 작가

인하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과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20여 회의 활발한 전시 활동을 통해 실험적인 회화 세계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대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1기)와 OCI미술관 레지던시(1기)에 입주하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우리 시 및 각 기관,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참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01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해드립니다.

군·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중구	*인하대병원 인천기독병원	㉠ 032-890-2114 ㉠ 032-270-8000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백병원	㉠ 032-580-6000 ㉠ 032-765-7070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 인천사랑병원	㉠ 032-888-7575 ㉠ 032-457-2000
연수구	나사렛국제병원 *인천적십자병원	㉠ 032-899-9999 ㉠ 032-899-4287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 1577-2299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1544-9004 ㉠ 032-524-0591 ㉠ 032-500-0114
계양구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 032-540-9114 ㉠ 032-240-8000
서구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뉴 성민병원 검단탑병원 온누리병원	㉠ 1600-8291 ㉠ 032-584-0114 ㉠ 032-726-1000 ㉠ 032-590-0114 ㉠ 032-567-6200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 032-290-0001
옹진군	백령병원	㉠ 032-836-1731

문의 : 시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32

***감염병 전담진료전문 병원으로 지정**

02 민생, 함께 제안하고 함께 개선해요

우리 시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 : 3월 19일까지

공모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과제 :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 및 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5개 분야

공모 방법 : ㉡ www.incheon.go.kr에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 petite979@korea.kr 또는 우편 제출

문의 : 시 혁신담당관실 ㉠ 032-440-1648

03 치매 환자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세요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인을 모집합니다.

후견인 역할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피후견인

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 연락망 형성, 정기 보고서 제출

모집기간 : 3월 13일까지

자격 요건 : 주소지와 거주지가 모두 인천시인 시민, 민법 제937

조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선발 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개별 면접

지원 내용 : 활동비, 교육비 등

신청 방법 : ㉡ incheon.nid.or.kr 참조

문의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 032-472-2028

04 이럴 땐, 아동 학대 의심하고 신고하세요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

어떻게 : 국번 없이 전화 112 또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112 신고

문의 : 시 아동복지관 ㉠ 032-434-6436

05 스마트폰, 이제 잠시 쉬어가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휴식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정 : 10월 7일~18일(학교 출석 인정)

장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라북도 무주)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남자

청소년(14~16세) 33명

캠프 내용 :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체험·대안·체육 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조절 동기 강화 및 과의존 해소 지원 등

비용 : 식대 보조금 10만원(취약 계층 무료)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721-2307

06 배움은 녹슬지 않습니다

인천여성의광장에서 2020년도 제2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녹슬지 않는 배움을 통해 삶에 활력과 보람을 더하세요.

신청 기간 : 3월 19일부터

교육 기간 : 4월 1일~6월 16일

교육 대상 :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wp(선착순)

문의 : 인천여성의광장 ㉠ 032-815-7101~3

07 119원의 기적에 동참하세요



소방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인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 소방관 현장 출동 중 발견한 어려운 이웃

지원 대상 선정 : 소방관 지원 대상 추천 후 지원 대상 심의

기부 방법 : 하루 119원씩 기부

기금 운용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신청 방법 : ㉡ incheon.chest.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 032-870-3085 또는 ㉢ seoyj00@korea.kr 제출

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032-456-3333

08 인천e음에 입점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인천e음 전화 주문 서비스 입점 안내입니다. 가입자 100만 인천e음 플랫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전화 주문 서비스 : 혜택 플러스 가맹점 중 배달이 가능한 요식 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배달 앱

혜택 플러스 가맹점 : 사업주 스스로가 부담해 인천e음 전자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현장 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

전화 주문 서비스 입점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며 배달이 가능한 업체

*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 후 전화 주문 서비스 가입 신청서 별도 작성

입점 혜택 : 입점 수수료 무료, 관리 페이지 제공, 홍보 마케팅 지원

문의 : 인천e음 고객센터 ㉠ 1811-8668

09 기자의 꿈, 인천시에서 실현하세요

인천시 공식 인터넷신문 ‘i-View’에서 활동할 객원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 3월 13일까지

모집 분야 : 일반 시민, 다문화, 청년·대학생

모집 대상 : 인천시 홍보에 관심이 있으며 기사 작성,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한 사람

혜택 : 채택된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인천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초청, 명함 지급, 우수 기자 시장 표창 상신 등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 032-440-8302

㉡ www.incheon.go.kr에서 ‘새소식’ 참고

10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인천시 서부여성회관에서 2020년 제2기 사회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3월 16일~31일
교육 기간 : 4월 1일~6월 16일
교육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시 거주자(20% 남성 수강 가능. 일부 강좌 제외)
교육 과목 : 피부 미용 기능사, 전산 회계, 탄탄 일본어 회화, 캘리그래피, 댄스스포츠, 우쿨렐레,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78개 강좌
수강료 : 3만6,000원~6만원(교재 및 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wiw
문의 : 시 서부여성회관 ☎ 032-458-7360

11 새 봄, 박물관에서 배우고 즐겨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분 좋은 계절 봄의 시작을 박물관과 함께하세요.

[유아 단체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일시 : 3월 31일~6월 16일
대상 : 5~7세(회당 최대 40명)
내용 : 전시실 관람 후 창작 동화 듣고 만들기 체험
교육비 : 무료
신청 일정 : 3월 10일~ 17일(인터넷 접수 후 추첨)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museum/index 참조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032-440-6738

[어린이 단체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 가자! 박물관으로
일시 : 4월 1일~6월 19일(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회당 최대 40명)
내용 : 박물관 상설 전시 및 교과 연계 학년별 체험 프로그램
교육비 : 무료
신청 일정 : 3월 6일~13일(인터넷 접수 후 추첨)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museum/index 참조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032-440-6738

12 우리 동네 도서관 문화 행사



[미추홀도서관]
다문화 체험 교실(멕시코)
일시 : 3월 21일 오후 2시~3시 30분
대상 : 초등 4~6학년 15명
문의 : ☎ 032-440-6643

미지의 영역, 남극과 북극
일시 : 3월 22일 오후 3시~4시 30분
대상 : 중학생 이상 40명
문의 : ☎ 032-440-6667

이은경 작가와의 만남
일시 : 3월 28일 오후 2시~4시
대상 : 초등학생 보호자 40명
문의 : ☎ 032-440-6667

[청라호수도서관]
꿈을 찾아가는 미래 직업 세계
일시 : 3월 7일 오후 2시~4시
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성인
문의 : ☎ 032-563-8125

오색 빛깔 세계 문화 여행(프랑스)
일시 : 3월 21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 1~3학년 20명
문의 : ☎ 032-563-8126

[청라국제도서관]
그림 동화 영어 스토리텔링
일시 : 3월 14일~28일 오전 10시~11시
대상 : 7~9세
문의 : ☎ 032-562-6826

2020학년도 3월 시민을 위한 인천 역사 문제지

<인천 역사 영역 - 독립운동>

▼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인천 만세 운동의 불씨는 1919년 3월 6일, 민족 자원으로 세운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의 동맹 휴교다. 어린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곧 인천 전역으로 번졌고 독립 선언서 배포로 이어졌다. 3월 9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만국공원(현 자유공원)과 시내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만국공원은 임시 정부 수립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장소다.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 임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는 상해 임시 정부, 연해주 대한국민회와 함께 3대 임시 정부의 하나인 ‘한성임시정부’다. 강화에서도 만세가 울려 퍼졌다. 1919년 3월 12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초등학교인 강화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칠판에 태극기를 그린 후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오, 여학생 80여 명이 목 놓아 부르짖은 만세는 교문 밖을 향했다. 1919년 3월 18일, 강화읍 웃장터와 아랫장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인천 만세 운동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한 것으로, 강화 전역으로 만세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3월 24일에는 황어장터에서, 27일에는 문학동, 28일에는 영종도 용유면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상점들이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인천 내리 상가 철시 운동, 서창리(현 남동구 서창동) 주민 만세 모의 역시 3월을 뜨겁게 달궜다. 식지 않은 인천 만세 운동은 4월 1일 월미도 만세 운동, 강화도 봉화 시위, 9일 덕적도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다.

※ 인천 독립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굿모닝인천> 2019년도 3월호를 참조하세요.

REVIEW

2월 출제된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 일자리보다는 노령층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인생 제2막을 열어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노인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지식을 품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글귀를 본 적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연륜을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시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다방면으로 효용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지탱했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 노력하는 인천시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가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 ‘인천 능력 평가’에 출제된 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3월 16일까지)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전동우(중구 하늘별빛로)

박지훈(계양구 주부토로)

김태희(안산시 단원구)



백범^{白凡}이 사랑한 인천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그가 1996년 가을 ‘정의봉’에 맞아 숨졌을 때 그의 방에 튀어 있던 핏자국을 지금도 기억한다. 단죄를 받기 전까지 안두희는 인천시 중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백범 암살의 배후를 밝혀내겠다는 젊은 기자의 호기로 그의 집 장롱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한 게 전부였다.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씨는 작은 체구에 동그란 눈, 굳게 다문 입술의 40대 초반 버스 운전기사였다. 평소 백범을 존경했던 그는 칼국수를 밀 때 쓰는 길이 40cm의 방망이에 ‘정의봉’이라는 글씨를 새긴 뒤 안 씨를 찾아가 “백범 암살 배후가 누구냐”고 추궁한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안두희의 정수리에 정의봉을 내리꽂는다. 청년 김창수(백범)가 수인 생활을 했던 신포동과 죽음의 노역을 해야 했던 인천항. 안두희가 백범의 발자취 선연한 중구에 숨어 살다 피살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백범이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라고 일컬었을 만큼, 인천은 선생이 가장 힘겹고도 찬란한 시간을 보낸 곳이다. 백범은 인천에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광복 이듬해 두 번 인천 땅을 밟았다. 1896년엔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며 일본 장교를 살해해서, 1914년엔 일제가 조작한 ‘안악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서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첫 투옥 땀 탈옥했으나 두 번째 갇혔을 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 지옥 같은 노역은 다른 수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지게에 흙을 퍼 담아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는 일이었다.



인천에 머물던 시기, 백범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다. 인천으로 들어온 신학문과 신문물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민족운동가로 성장한 것이다. 아들이 투옥된 뒤 어머니 광낙원 여사도 인천으로 온다. 자식 입에 밥 세 끼를 넣어주기 위해 광 여사는 감리서 인근 객줏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헌신적 옥바라지를 한다. 인천대공원 백범 김구 동상 곁에 광낙원 여사의 동상이 함께 서 있는 이유이다. 찬밥을 바가지에 담아 선생이 갇힌 인천감리서로 향하는 형상의 광 여사 동상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인천축항은 내 피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백범일지> 중) 백범은 1946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인천을 찾는다. 첫 방문 때엔 인천감리서와 인천축항을 돌아본 뒤 내리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인천 내리교회 1층엔 당시 사진이 걸려 있다. 그해 가을엔 강화도로 향한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한 강화도 김주경 선생을 비롯해 탈옥 당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인천시가 ‘스카이라워아파트~유항렬 주택~월아천’으로 이어지는 ‘김구 순례길’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백범 기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처럼 인천과 백범의 끊을 수 없는 인연 때문이다. 시는 ‘백범이 사랑한 인천, 인천이 사랑한 백범’이란 취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중순, 감리서가 있던 스카이라워아파트 언덕에 서서 겨울바람을 맞는다. 선생이 오르내렸던 가파른 경사 길을 따라 인천항 방면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철거덕철거덕, 어디선가 차가운 쇠사슬의 환청이 들려온다. 유항렬 주택을 지나 옛 객줏집에 이르자 하늘에서 눈발이 흠날린다. 저 눈송이는 혹시 감옥에 갇힌 외아들을 바라보며 흘린 광낙원 여사의 눈물이 아닐까.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인 천 사 진 관



하나는 돌이 되고, 둘은 또 넷이 됐습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사랑은 배가 됐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다가올 나날이 더 행복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워킹맘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미소를 잃지 않아줘서.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남편까지 살뜰히 챙겨줘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가족사진을 찍겠다는 우리의 약속, 올해부터가 시작입니다.

김환주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청라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경기가 좋을 땐 이웃을 위한 사진 봉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요즘이지만 마음만은 여유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청라국제도시 1호 사진관’이라는 타이틀은 윤의경 사진사의 자부심이자 희망입니다. 위치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7 문의 032-568-5687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이메일 goodmorningc@naver.com (성명/연락처/주소 필수)

